



# 백두산의 부끄러움

안청수 지음

“당신들은……?”

“지금 핵 실험을 계속하면 무슨 일이 터질지는 뻔하지 않소?”

여자가 서랍에서 책을 한 권 꺼내더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백두산 대폭발의 비밀>  
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책머리에

**제1부 성장기**

나의 살던 고향은 / 9

귀향 / 21

**제2부 방황**

기울어져 가는 가세(家勢) / 43

도움의 손길-방황의 끝 / 67

**제3부 정치 입문**

정치의 유혹 / 83

동창회 / 106

군의회 입성(入城) / 113

북한 방문기 / 123

군의원 사퇴 / 131

**제4부 아 백두산!**

뜻밖의 만남 / 145

백두산 기행 / 167

〈한민족의 회복〉 / 181

쫓는 자, 쫓기는 자 / 205

에필로그



## 〈한민족의 회복〉

밤 10시쯤에는 모두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하루의 피곤했던 일 정 탓인지 숨소리가 크게 들렸다. 나는 화장실을 갔다가 숙소 밖으로 나왔다. ‘이제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간다.’ 언제 다시 오게 될지 모르지만, 떠나기 전에 시내의 풍경이라도 한번 둘러보고 싶었던 것이다.

백두산 자락에 있는 바이산(白山) 시는 관광 도시였다. 규모는 우리나라의 중급(中級) 시 정도로 보였는데,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게 눈에 띄었다. 네온사인 간판으로 호객하는 노래방과 안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술집이 눈에 들어

왔다. 실내등을 환하게 켜 채 늦은 손님을 기다리는 대형 음식점도 있었다. 양복을 입은 중년 신사가 술이 거나하게 취한 채로 옆에 젊은 여자를 끼고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부르며 지나갔다.

저만치 가다가 갑자기 뒤편 돌아서더니 나를 향해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 내가 ‘알아들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검지와 중지를 입에 갖다 대면서 담배를 피우는 시늉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손을 흔들며 “노, 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뭐라고 씨부렁거리면서 다시 가던 길을 갔다.

창으로 안이 들여다보이는 작은 음식점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2사람이 한 식탁에서 중국 술을 갖다 놓고서는 때늦은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음식점에는 중국어와 함께 한글로 <김치찌개/된장찌개/순두부백반...>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국인 관광객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일 게다. 아무튼 타국 식당에서 한글로 적힌 메뉴를 보니 너무나 반가웠다. 계산대에 앉은 여자-40대 후반쯤 되었을까?-와 눈이 마주쳤을 때 얼른 오른손 엄지를 추켜세워 보였다. 여자가 익숙한 태도로 방긋 웃으면서 좋아했다.

이때 갑자기 온몸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아니, 디디고 있는 땅이 움직이고 있었다. 순간 얼마 전 조혁을 만났을 때가 떠오르면서 정신이 멍멍해졌다. 음식점 유리창으로 보이던 여자의 얼굴

이 긴장되더니 순식간에 공포로 휩싸였다. 식사하던 남자 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오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이 여자도 어기적거리며 힘겹게 밖으로 걸어 나왔다.

‘어디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었나?’ 할 정도로, 조용하던 거리가 갑자기 사람들로 채워졌다.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가 사람들의 얼굴에 덧칠되어 있었고, 뭐라고 고함치는 소리, 비명소리, 우는 소리들이 뒤섞여 상황은 견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져 갔다. 서서 몸을 가누려고 애쓰는 사람, 바닥에 드러누워 죽은 듯이 있는 사람,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갓난아이를 껴안고 울고 있는 여자도 보였다.

나는 숙소에 있는 일행들이 생각나서 오던 길을 급히 돌아가고 있었다. 몇 번 끊겼다 이어졌다 하던 지진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다. ‘숙소에서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까? 내가 없어진 것을 알고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 걸음이 점점 더 빨라졌다. 괜히 나왔다는 생각도 들었다. 누군가와 어깨를 툭 부딪쳐 얼른 몸을 돌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내 옆에 멈춰 섰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한 젊은 여자가 나오더니 능숙하고 재빠른 동작으로 내 얼굴에 뭔가를 뒤집어씌우는 것이었다. 나는 곧바로 정신을 잃어버렸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얼른 다시 눈을 감아야 했다. 눈부신 빛이 바로 위에서 얼굴로 덮치듯이 내리 쏘였기 때문이다. 얼굴을 찡그리며 천천히 눈을 뜨자 갓전등이 해와 같이 바로 머리 위에서 맹렬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불빛에 얼굴이 뜨끈한 것 같았다. 나는 책상 앞에 있는 의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 있었다.

“이제야 정신이 드는구먼, 안장수 씨!”

내 앞에서 군복을 입은 한 여자가 나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나이는 한 50쯤 되어 보였다. 나는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여자가 눈짓을 하자, 어둠 속에서 또 한 여자가 나타나더니 내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 주었다. 이 여자도 군복을 입고 허리에는 권총을 차고 있었는데, 젊고 얼굴이 앳돼 보였다. 나는 어리둥절하여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여자들이라고 우습게보지 마시오, 우린 다 유단자(有段者)들이니까!” 마주앉은 여자가 싱긋이 웃었다. “너무 놀랄 거 없어요. 우리는 당신이 백두산 관광 올 거라는 첩보를 입수했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소. 그놈의 김정은이 때문에 일이 틀어질 뻔했지만.”

“당신들은 누구요?”

나는 겨우 용기(?)를 내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물론 궁금하겠지. 하지만 그걸 말하기 전에 아까 일어난 지진

이 뭔지 아시오?”

그제야 나는 숙소에서 나와 겪었던 지진이 생각났다. 여자는 “아까”라고 말했지만, 그 후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여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던 말인가?’ 나는 천천히 머리를 저었다.

“김정은이가 수소폭탄 실험을 한 거지, 길주군 풍계리에서!” 여자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언성을 높이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인민들은 밥 한 그릇을 못 먹어 굶어죽고 있는데 말이오! 그래, 두고 보라고! 네가 사는 동굴 속까지 반드시 쳐들어갈 날이 올 테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놈의 가족을 벗겨 깃대에 매다는 것이지!”

여자의 얼굴에는 섬뜩할 정도로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런데 말이요, 이번에는 김정은이 그 어린 것이 할아버지 시진핑의 얼굴에 침을 뱉은 거나 같지요. 말 한 마디 없이 핵 실험을 해 버렸으니까, 중국도 북한을 통제하기가 어려운가 봐. 그러니까 더 문제지. 어떻게 생각하시오?”

나는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무슨 소리냐?’는 듯이 여자를 멍뚱 멍뚱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다가 간신히 말했다.

“당신들은……?”

“지금 핵 실험을 계속하면 무슨 일이 터질지는 뻔하지 않소?”

여자가 서랍에서 책을 한 권 꺼내더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백두산 대폭발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흥미로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더구먼. 한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 버릴 정도였으니…….” 여자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지금 백두산이 다시 폭발한다면,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의 대재앙이 될 게 분명하오. 북한이 만든 핵탄두가 다 터져 버리고, 바다 속에 숨어 있던 핵잠수함들이 쓰나미에 떠밀려서 일본이나 태평양으로 흩어져 폭발한다면 지구에 엄청나게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지 않소? 이것은 남북한이나 중국, 일본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지 않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구, 무슨 수단을 써서든 막아야 해! 그런데도 이 망할 놈의 새끼 곰은 핵을 무슨 장난감 다루듯이 가지고 놀면서 백두산의 코털을 건드리고 있으니……. 지하 핵 실험장하고 백두산하고는 1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더구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자가 나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 침묵의 시간을 견디기가 내게는 너무 힘들었다. 눈부신 불빛 아래에 책상을 사이에 두고 처음 보는 두 사람이 마주앉았는데, 주변은 캄캄한 어둠이었다. 불빛의 밝기 때문에 눈이 어둠에 적응이 되지 않았다. 얼마나 넓은 방인지, 방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정체불명



의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게 막막하기만 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침묵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 말했다.

“우리의 조직명은 <한민족의 회복>이오.”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차분한 목소리로 담담하게 설명해 나갔다. “우리의 조직은 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소. 모두 북한에서 넘어왔지. 북한에서 모진 학대와 온갖 고통을 당하며 짐승처럼 살다가 탈출한 사람들이 많아. 지금도 탈북한 여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그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란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갈지. 모두 여자들이기 때문에, 조직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무술을 배우게 하거든. 모두 유단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소.”

그러고 보니, 여자가 줄곧 남한 말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쳤다.

“내가 남한 말을 사용하는 게 이상하지 않소?” 여자가 싱긋 웃었다. “우리가 통일을 시키면 남한 말을 나라의 표준어로 정할 것이오. 그래서 우리 조직은 남한 말을 사용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나를 어떻게 알았단 말이오?”

“다 아는 수가 있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통치를 할 수 있겠소? 남한의 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까지는 다 파악하고 있지. 안씨는 바른말을 잘하지만,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미운털이 박혔지.

그 정도쯤은 알고 있소. 좀 적당히 하지 그래. 잘 아시겠지만, 정치는 입바른 소리나 정의의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잖나?”

그 말에 나는 얼굴이 후끈거렸다.

“북한의 조직은 남한보다는 어렵소.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예전보다는 정보 수집이 수월해진 편이야. 담당 부서들이 다 만들어져서 열심히 일하고 있소.”

나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다.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이런 조직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북한에서 분리되어 자생한 단체, 그것도 북한의 폭력 정권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라면 그 생명력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할 것 같았다. 그들의 심장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린 후에는 누구에게도, 어느 나라에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전체를 자기들이 통치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한민족의 회복〉이란 무슨 뜻이오?” 내가 여자에게 물었다.

“우리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는 발해국이 멸망된 후 잃어버린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오. 그것만이 한민족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길이지.” 여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카랑카랑해졌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남북한을 동시에 접수할 것이오. 이 일은 양쪽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해. 많은 군대가 필요하지도

않지. 얼마의 무기만 있으면 돼. 소라의 살을 빼먹는 것처럼, 정부만 점령하고 나면 그들이 가진 군대고 무기고 두뇌고 다 우리 것이 되거든. 나라 전체가 우리에게 넘어온다는 말이지. 그리고 나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우리의 2차 목표를 실행하게 될 거요.”

나는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그 일을 하겠다는 거요?”

“궁금하겠지. 우리 민족은 발해국 멸망 후에 여러 번 북벌 계획을 세웠으나, 실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소, 잘 알지 않소?” 불빛에 비친 여자의 얼굴에서 열기가 느껴졌다. 손가락을 여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 새카맣게 타들어갈 것 같았다. “첫 번째는 고려가 요동을 정벌하려고 군대를 보냈지만,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였지. 다음, 조선이 세워지고 이번에는 이성계와 정도전이 요동 정벌을 계획하였으나,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실패했지. 사실 요동도 고조선과 고구려와 발해 시대에는 우리의 영토였으니까, 이런 계획에는 실지(失地) 회복이라는 나름의 대의가 있었어. 세 번째로, 조선 효종 때는 청나라를 정벌할 계획을 세웠으나, 효종의 때 이른 죽음으로 이것도 수포로 돌아갔지. 하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거요!” 하고는 여자가 단호하게 주먹을 쥐어 보였다. 여자의 주먹 인데도 웬지 단단해 보였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소.”

나는 정신이 몹시 혼란스러웠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런 상황 같았다. 엄청난 비밀이 내 눈앞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정작 나에게서는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부터 판단이 서지 않았다. 허벅지를 꼬집으니까 아팠다. 아픈 걸 보니 분명 꿈은 아닌데, 그렇다 해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몸은 현실에 있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은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 같았던 것이다. 설사 이 모든 일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꾸미고 있는 계획에 박수를 쳐야 하는가? 동의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여자가 하는 말들이 평소 나의 관심사이기도 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내가 간절히 알고 싶었던 것은, 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문제들의 답이 아니라, ‘우리 일행은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나를 찾으라고 숙소에서는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들의 답이었다. 먼저 이 답을 알고 난 뒤에 생각해도 될 일이었다.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 군인이 들어와서 허리에 권총을 찬 여자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여자 군인이 나가고, 권총을 찬 여자가 나와 마주앉은 여자에게 다가오더니 그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소곤거리는 것이었다. 비서(권총을 찬 여자는 비서 같았음)의 말을 듣고 있는 여자의 눈이 나를 향하더니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여자는 잠

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나를 향해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조혁을 아시오?”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떨어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이것은 장도리로 나의 머리를 세차게 때리는 것과 같은 질문이었다.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최근에 조혁을 만난 적 있지요?”

나는 멍하니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극도의 혼란이 발끝부터 머리까지 바람처럼 휘감고 올라왔다.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내 귀에 까지 들리면서 숨결이 거칠어졌다. 감정을 진정시키려면 내게도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나는 보는 것도 힘겨워 눈을 지그시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머리를 비워 버리는 것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아니, 아예 정지해 버린 시간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내 옆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내가 먼저 움직이도록 압력을 넣고 있었다. 살짝 뜬 눈에 비친 여자의 매서운 눈초리는 여차하면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내 머리에 내려앉아서 날카로운 부리로 살점을 뜯어먹을 것만 같았다. 심장의 고동 소리가 진정되고 흥분이 가라앉자, 머릿속에서 사라졌던 수판(數板)이 다시 나타났다.

이 여자가 조혁을 어떻게 안단 말인가? 더욱이 내가 조혁을 만난 사실을? 혁이와 묵었던 호텔에도 이 조직의 첩자가 숨어 있었

단 말인가? 그날 한 여직원이 우리에게 유난히 친절하게 행동했는데, 혹시...그는 우리 방 안까지 따라와서는 내부를 이것저것 손보고는 나갔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 달라면서. 그때 도청기를? 아냐, 설마하니 그렇게까지.....

“조혁을 어떻게 아시오?”

나는 이 점이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여자가 덤덤하게 대답했다.

“내가 말했잖소, 지방 의회 정도까지는 잘 알고 있다고.”

“조혁은 나의 오랜 친구요.”

“오, 그래?” 여자의 눈이 반짝거렸다. “우리가 그 점을 놓치고 있었군. 둘이서 무슨 말을 했소?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다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끼리 무슨 말을 하겠소? 그건 왜 묻는 거요?”

“조혁은 우리가 요주의 인물로 관리하고 있지. 남한의 모든 안보 정책은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당신과 나는 대화가 궁금한 거고.”

나는 말없이 가만히 여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여자의 입을 통하여 조혁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그게 꼭 필요하다면, 당신과 나는 대화의 내용은 다른 방법으

로도 알아낼 수 있어. 그렇지만, 당신이 얘기해 준다면 우리의 수고를 덜어 주는 거지.” 잠시 멈추어 나의 반응을 살핀 여자가 계속 말했다. “이 문제는 당신을 여기 데려온 것과는 관련 없는 일이고, 나는 당신에 관한 자료를 보았고, 당신을 믿었소. 당신을 이리로 데려오도록 지시한 사람도 나요!”

여자의 말에 나는 그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계급을 나타내는 듯한 보라색 열매 같은 것이 4개 있었지만, 나로서는 처음 보는 표지였다. 가슴에는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호가 보라색으로 양쪽에 적혀 있었다.

“안장수 씨는 <단군 신화>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예?” 여자의 갑작스런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뭘 말이오?”

“한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시오?” 나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여자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단군 신화>를 바로 잡는 것이지. 쑥과 마늘을 먹고 곰이 여자가 되었다는 말을 누가 믿겠소? 또 그런 여자를 민족의 시조로 삼아야 하는 후손들은 어떻게? 난 ‘신화’라는 말 자체부터 마음에 들지 않아. 필요한 것은 뻔한 거짓말인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야. 이 문제를 바로 잡아서 한민족의 정신세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한 첫 번째 일이고.”

“어떻게 했던 말이오?”

나는 백두산 천지 옆에서 표지석을 쓰다듬으며 했던 생각이 떠올라서 침을 꼴깍 삼켰다.

“당신도 성경을 읽지요?”

“예, 그렇소.” 하고 내가 대답했다.

여자는 책상 서랍을 열더니 검정색 두꺼운 책을 한 권 꺼냈다. 성경이었다.

“성경 아니오?”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소. 성경이지.” 여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지. 2위 자리가 의미가 없는, 세계 제일의 베스트셀러! 안장수 씨는 노아의 홍수가 언제 있었는지 아시오?”

“아 그건, 기원 전 2370년이오.” 나는 다시 한 번 침을 꼴깍 삼켰다.

“맞소.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는 충분히 많지. 홍수 설화가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소. 아시아와 태평양의 섬들, 그리고 북아메리카와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는데, 그 수만도 270가지나 된다고. 모든 설화의 주요 특징들이 성서의 기록과 일치하오. 소수의 생존자들에게 도피 장소가 주어졌고, 그 밖의 생명체들은 물론 멸망되었으며, 인류의 씨가 보존되었다는 점이지. 당연하지만, 생존자들은 당시 세상을 멸망시켜 버린 대홍수를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거야. 그래서 자녀와 손자녀에게 말했을



것이고, 대를 이어 구전되어 내려갔지. 전 세계의 여러 원시 종족들의 전승 가운데서도 대홍수 설화가 발견된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모두 공통 기원을 가지며, 따라서 이들의 초기 조상들이 대홍수 경험을 공유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지. 어떻게 생각하시오, 안장수 씨?”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하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책상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자로 배 선(船) 자도 배 주(舟)와 여덟 팔(八)과 입 구(口) 자를 합친 말이지.”

“그렇소, 좋은 점을 지적했소! 어쨌든 홍수 후에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인류가 퍼져 나갔지. 야벳은 인도·유럽 어족의 조상으로서, 그의 후손들은 중앙아시아와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의 섬들과 해안선을 따라 스페인까지 이동했소. 셈의 후손들은 그 당시 아시아 대륙의 일부와 아라비아 반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지. 함의 네 아들을 통해서는 에티오피아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아라비아와 아프리카의 일부 부족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나왔지.” 여자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셈의 후손들은 약간 흰색에서 연한 갈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피부색을 가졌어. 야벳의 후손들의 피부는 흰색에서 짙은 갈색까지이고, 함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함’이란 단어 자체가 ‘거무스레’하거나 ‘햇볕에 탄’ 것을 의미하

지만, 후손들의 피부색이 다 그랬던 건 아니야. 일부만 거무스름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지. 이집트인들은 연한 갈색 피부이고, 가나안 민족은 흰색 계통의 피부였지. 그런데, 당신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누가 장남이라고 생각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생각의 회로가 빨리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

“무슨…글쎄요, ‘셈’ 아닌가요?”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대개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구.” 여자가 성경을 펴면서 말했다. “함이 막내라는 건 알고 있겠지. 셈이나 야벳이한테,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 노아가 500세가 되어서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다고 알려 주거든. 7장 6절에서는 땅에 홍수가 있었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다고 하지. 다시 11장 10절로 가면, 대홍수 후 2년 즉 셈이 100세 때에 자기 맏아들을 낳았다는 거야.” 장과 절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보던 여자가 성경을 탁 덮었다. 그리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결론을 내렸다. “이 말은 노아가 502세에 셈을 낳았다는 거 아냐? 따라서 이보다 2년 전인 500세에 낳은 아들은 야벳이라고 보는 게 이치적이거든.”

나는 여자를 응시하면서 ‘이 자가 어떻게 이런 성경 지식을 갖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했다. 또한 ‘이것이 <단군 신화>를 바로 잡는 것과는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도 했다.

“그건 그렇고.” 하고 여자가 계속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셈에 관한 거요. 셈의 후손들은 주로 아시아 쪽에 퍼져 살았지. 처음에는 아시아의 남서부 쪽에 집중되어 살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동쪽으로 이동해 갔소. 지금의 티베트와 중국을 지나고, 몽골을 지난 일부가 한반도로 들어와 정착하게 된 거지. 처음에 그들은 백두산 근처에 자리를 잡았을 거요. <단군 신화>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마도 그랬을 거요. 하지만 이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 된 거지. 셈의 후손들이 아시아인 계통을 형성했고,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부가 동아시아에 속한 한반도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한민족의 시조가 된 셈이지. 마치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처럼 두려우리만치 거대하고 웅대한 백두산은 그들의 순박한 정신세계를 지배하기에 충분했을 거야. 백두산에 제단을 만든 것이 그 점을 잘 증명하지 않소?”

“모든 인류는 결국 노아의 후손이고, 그중 한민족은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손이 맞지요.” 하고 나는 한껏 호기심을 갖고 물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답을 찾게 되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지.” 하고 여자가 대답했다. “성경 전체가 기록된 기간은 1600년이 넘어. 약 40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지.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에 살았고 출신 배경도 다양해. 농부, 어부, 의

사, 왕, 군인 등등이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지. 그런데도 어떻게 66권 전체의 내용이 조화롭고 통일될 수 있느냐 말이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나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여자의 눈을 응시했으며, 여자의 도톰한 입술 사이로 빠져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두 번째는” 하고 여자가 계속 말했다. “성경의 천문학적인 배부 수 때문이지. 성경은 지금까지 대략 50억 부가 발행되었대. 매년 약 6000만 권이 생산되었다고 하니, 1년으로 나누면 약 16만 권의 성경이 매일 생산되고 있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책이 또 어디 있어? 이런 책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성경이 ‘신화’를 ‘역사’로 바꿔 놓았지. 확실한 근거와 증거로 미뤄볼 때, 성경보다 더 잘 증명된 역사서는 없소. 안장수 씨, 눈 좀 감아 보겠소?”

나는 여자의 ‘명령’에 따라 얼른 눈을 감았다. 웬지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 옛날 셈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부른 노래가 뭔지 아시오?”

내가 그 노래를 알 턱이 없었다.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 몇 초의 짧은 정적을 뚫고서 어디선가 (여자의 목소리로) 가냘픈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다. 노래는 처음에는 독창으로 시작되었다가

어느새 이중창이 되었다. 나는 바짝 긴장하면서 귀를 쫑긋 세웠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소름이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타고 올라왔다. ‘어쩐! 이 노래는……?’ 일전에 나는 이 노래에 대한 설(說)을 읽은 적이 있었다. 지금 노래를 들으면서 그때 읽었던 내용이 새롭게 떠올랐다.

설의 요점만 말하면, ‘아리랑’은 ‘알’과 ‘이랑’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알’은 성경의 히브리어 ‘엘로힘(하나님)’의 ‘엘(EL)’처럼 ‘하나님’을 뜻하고, ‘이랑’은 ‘누구랑’, ‘거시기랑’ 하는 것처럼 ‘~와 함께 (with)’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리랑’은 ‘알이랑’ 즉 ‘하나님과 함께 (with God)’라는 뜻으로서, 어원학적으로 볼 때 ‘알이랑’이 연음(連音)이 되어 나는 소리라고 했다.

“셈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해 갈 때 산을 넘고 고원을 넘고 산맥을 넘으면서 부르던 노래였대. 우리는 이 노래를 〈셈의 노래〉라고 부르지.” 서랍에서 꺼낸 서류를 뒤적이던 여자가 서류를 책 위에 내려놓았다. “이런 노래라면 나중에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단군 시대에 백두산에 만든 제단을 둘러서서 의식을 행하면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시오, 단군은 제단 앞에서 두 팔을 들어 올려 하늘을 우러러보고, 둘러선 사람들은 그 옛날 자기네 조상들이 살 곳을 찾아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불렀던 〈셈의 노래〉를 부르고…….”

놀랍게도, 여자의 얼굴에서 종교적인 경건함이 진하게 배어 나왔다. 누가 감히 건들 수 없는, ‘아니라’고 토를 달 수 없는 배타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방금 여자가 말한 이 부분이 바로 이 조직의 골격을 이루는 사상이자 주변의 사상들에 생명을 공급하는 핵심 사상인 것 같았다. 생각이 여기에 닿자, 〈한민족의 회복〉이라는 조직의 이름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여자는 이 ‘이름’이라는 싹이 나오게 된 뿌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안에서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여자의 말을 듣고 있는데, 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왜일까? 여자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상상하노라니, 한 하나님 앞에서 한 무리가 되어 모여 있는 사람들,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로울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에서 뜨거운 민족성이란 용광로에 한 데 녹아 있었을 때가 그리워지는 것은 왜일까? 작금의 ‘분단’이라는 서글픈 상황과 ‘핵무기’라는 뜨거운 이슈 앞에서 불안해하는 한민족의 일원이라면, 그리고 오래전에 잃어

버린 대륙에 대한 아쉬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한민족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회복’이 가능할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안장수 씨!”

나는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자와 나의 눈길이 마주쳤다. 아까의 긴장감과 종교적인 경건함은 사라지고 없고, 맑은 눈빛과 부드러운 표정이 여자에게 친밀감마저 느끼게 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목소리에서, 상관의 지시할 때처럼 거역하기 어려운 권위가 느껴지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한국으로 돌아가거든 여기서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빠짐없이 다 알리시오. 방송이고 신문이고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동원하십시오. 전 세계가 깜짝 놀라도록!” 여자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전 세계의 관심이 북한 하나에 집중될 것이고 곧이어 북한에 대한 세계 강국들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그들의 힘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작살낼 것이요, 만방에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효과도 있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협에 처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소. 우리는 지금까지 3대를 이어오면서도 견재하며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 우리는 생존 방법을 터득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반도를 통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오. 고맙게도 북한은 우리에게 신민들을 계속 공급해 주잖아. 우리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우리는 더 이상 압제를 견디지 못해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던 나약한 여자들이 아니오!”

나는 비로소 이들이 나를 납치해 온 이유를 알게 되었다.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듯하면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우리는 오랜 옛날부터 함께한 민족이었소. 함께 걸었고, 고개를 함께 넘었으며, 함께 고생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오. 백두산에 제단을 쌓고 자손 대대로 함께 뭉치자고 장래를 약속하기도 했지. 한민족은 하나의 민족이야. 서로 금을 긋고 총구를 겨누고, 핵무기로 민족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행동은 민족에 대한 배신행위와 다르지 않아. 우리는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이 상황을 끝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지. 민족적 사명감이라고 할까?” 여자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명령을 내렸다. “불을 켜라!”

“예!”

여자의 명령에 여군 비서가 벽의 스위치를 눌렀다. 순간 나는 “악!”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책상에 파묻었다. 갑자기 눈이 너무나 부셔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거대한 초신성이 폭발할 때처럼 빛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이럴 수가! 이 넓은 공간은 뭔가! 10000평은 족히 되어 보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넓은 공간에 있었던 말인가! 천정의 높이



도 100m는 될 것 같았다. 밝은 빛을 쏟아 내는 수많은 별들처럼 전등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이제껏 책상 위에서 밝은 빛을 쏟아 내던 갓전등은 벽에서 뽑아 낸 전선 끝에 매달린 단 한 개의 전등에 지나지 않았다. 이 거대한 공간의 출입문 옆에 작은 책상과 의자 2개가 있고, 그 위에 2권의 책과 몇 장의 인쇄물이 놓여 있었다.

“여긴 본부직할부대가 모임을 갖거나 훈련하는 곳이지. 직할부대는 딱 1000명이야. 여기서 팔다리로 지시가 다 내려가지.”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벽의 3면에 붙어 있는 거대한 그림들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프레스에 온몸이 찍어 눌리는 것 같은 중압감을 느꼈다. 공간은 비어 있었지만,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공기의 부피만 한 크기의 바위 같았다. 엄청난 무게감을 느끼면서 표정이 눌린 듯 일그러지고 정신은 몽롱해졌다.

정면에 보이는 그림은 우리가 흔히 보아 왔던 단군의 초상화였다.

“이 나라의 ‘영원한 태조(太祖)’야.” 여자가 초상화를 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한민족의 회복〉 활동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분을 건국의 아버지로 맨 앞자리에 모셔 왔지.”

왼쪽 벽에는 이 조직을 이끌어 온 3명의 지도자로 보이는 여자

들의 사진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특히 세 번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내 앞에 앉아 있는 여자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오른쪽 벽에는 고구려의 영토를 나타내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언제 보아도 정말 방대한 영토였다.

“저 영토를 온전히 회복하기 전에는 우리가 할 일이 끝나지 않을 거요. 우리가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한민족이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뜻이지.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요.” 여자는 책과 서류를 서랍 안에 도로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충격에서 아직 덜 깨어나 정신이 나간 모습으로 앉아 있는 나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안장수 씨, 당신의 활약을 기대하겠소. 당신도 한민족의 일원이잖소. 한국으로 돌아가는 즉시 활동을 개시하시오. 지체하지 마시오. 당신이 이 방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당신은 우리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가게 될 거요. 잘 가시오!”

여자가 말을 마치자마자 여군 비서가 내게 다가오더니 다시 머리에 뭔가를 뒤집어씌웠다. 나는 곧바로 정신을 잃었다.



## 쫓는 자, 쫓기는 자

누군가 나를 흔들며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근심 어린 얼굴을 한 중국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며 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내가 차에 태워져 납치되어 갔던 그 장소였다.

숙소로 돌아와 보니 일행들은 아직 곤히 잠들어 있었다. 새벽 4시니까, 아직 몇 시간은 더 잘 수 있었다. 나도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바람에 납덩이처럼 무거워진 몸을 침대 속으로 겨우 밀어 넣었다. 언뜻 여자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지만, 곧바로 맹렬하게 불어 닥친 잠의 폭풍에 밀려나 깃털처럼 아득히 먼 곳으로 날

려 갔다. 나는 수면(睡眠) 아래로 깊이 가라앉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바깥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깬다. 침대에서 내려와 눈을 비비며 창가로 가서는 커튼을 열어젖혔다.

“오메!”

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직 미명(未明)이라, 바깥 풍경은 희뿌연게 풀어 놓은 물감 속에 잠겨 있는데, 언젠가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TV에서 보았던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그때 창밖에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낮은 집은 전파되거나 반파되어 폭삭 주저앉았다. 자동차들도 여기저기 제멋대로, 혹은 뒤집혀서 혹은 옆으로 누운 채로 세워져 있었다. 주변 전체가 무질서의 극치인 아수라장으로 변했으며, 길과 도로도 구분이 되지 않았다. 멀리서 개미 떼 같은 까만 점들이 꿈실거리며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우째, 이런 일이!”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두려움과 공포가 또다시 쓰나미처럼 가슴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간밤에 했던 경험이 감정적으로 요동치면서 치가 떨렸다. ‘이게 꿈이 아닐까? 아니면, 그것이 꿈이었는지! 아, 또 이런 일을……?’ 정말 꿈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근처의 살아남은 건물에서도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

했다. 그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뭐라고 외쳐댔는데, 나는 그게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의 수가 금방 불어나더니 어디론가 급히 이동해 갔다. 개미 떼처럼 까만 점들로 보이던 사람들도 가까이 다가오더니 먼저 간 무리들을 뒤쫓아 급히 달려갔다.

하늘 한쪽에 먹구름이 끼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하늘 전체가 어두워졌다. 저 멀리서 섬광이 번쩍하더니 독수리처럼 생긴 물체가 쏜살같이 날아왔다. 내 눈앞에서 거대한 잠수함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니 내가 묵고 있는 호텔 위로 스치듯이 날아가 버렸다. 다시 섬광이 번쩍번쩍하더니 이번에는 온갖 종류의 새들이 떼거지로 몰려왔다. 이들은 날개를 치며 나를 향해 화살처럼 날아와서는 눈 위로 곡선을 그으면서 배뎀기를 드러냈다. 이들의 배뎀기에는 〈화성 5호〉, 〈화성 6호〉, 〈노동 1호〉,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은하 3호〉, 〈무수단〉, 〈광명성 3호〉, 〈광명성 4호〉 등등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는데, 고막이 터질 듯한 소음을 내면서 호텔 위로 사라졌다. 그제야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백두산이 터졌다! 백두산이 터진 거야!”

나는 얼른 침대로 달려가서 일행들을 흔들어 깨웠다.

“백두산이 터졌어! 얼른 일어나!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우리는 잠옷 차림 그대로 부리나케 건물 밖으로 내려갔다. 목

숨 외에는 아무것도 챙길 수 없었다. 건물 안에서는 물론 심지어 카운터에서조차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밖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모두들 극도의 공포감에 짓눌려 굳은 표정에 말이 없었다. 업히거나 안긴 아이들조차 본능적으로 상황을 인지했는지 떼를 쓰거나 울지 않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각각의 얼굴에 자객처럼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사람들과 부딪혀 가며 빨리 달리려고 무진 애를 썼다. 되도록 멀리 높은 곳으로 달아나야 했다, 그것도 빨리, 시간을 놓치면 소용없었다. 아내 외의 다른 일행들은 사람들 사이에 언뜻언뜻 나타나더니 곧 시야에서 아주 사라졌다. 어차피 모두를 챙기기에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사실 그들을 걱정하고 있을 마음의 여유도 내게는 없었다.

천지의 물이 쓸고 간 곳곳에는 퇴적물들이 쌓여 있어서 걷거나 달리는 데 장애물이 되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달리기에 급급한 상황인지라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말할 틈도 없었다. 너무 긴장한 탓인지 숨이 차거나 힘든 줄도 몰랐다.

“망할 놈의 돼지새끼!”

나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활화산 근처의 지하 핵폭발은 화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한 어느 교수의 말이 생각났다. 핵폭발은 백두산 아래에 있는 마그마방(지각 내의 마그마가 대량으로

모여 있는 곳)의 압력을 높여서 위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마그마의 온도가 1600도라고 했던가?

“아!”

힘겹게 달리던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왜 그래, 여보?”

“발! 발!”

아내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발을 가리켰다.  
내가 쪼그려 앉아서 아내의 한쪽 발을 만지자 아프다고 비명을 질렀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여보, 걷기 힘들겠어? 업어 줄까?”

“아니, 당신 먼저 가.”

아내가 괴로운 표정으로 손을 저었다.

“안 돼!” 하고 내가 소리를 질렀다. “당신을 두고 나 혼자 어떻게 가!”

“한국에서 오셨군요.”

그때 한 여자가 내게 다가오더니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여자는 젊고 깔끔한 옷차림을 한 것이 첫눈에도 귀티가 났다. 머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얼굴 화장도 꼼꼼하게 한 것이 급하게 피난 나온 사람 같지는 않았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잠옷 차림의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행색에 놀라서 물었다.

“나는 아, 조선족이에요.” 여자가 생긋 웃으며 말했다. “아니, 사실은 전에 북한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위험해요. 곧 마그마가 밀려오거든요!”

“아내가 발을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소.”

“둘 다 죽는 것보다는 당신이라도 살아야지요. 살아서 한국으로 가야지요.” 여자가 부드럽게 힘을 주어 말했다. “한국에 가서 할 일이 있잖아요!”

여자는 웃으며 내 어깨를 살짝 두드리더니 앞으로 뛰어갔다. 나는 순간 멍해지면서 뛰어가는 여자를 잠깐 바라보고는 얼른 아내를 들쳐 업기 시작했다. 다친 발이 움직이자 아내가 또 고통스런 비명을 질렀다. 나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아내를 등에 업고서는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여 숨이 차서 더 이상 뛸 수가 없었다. 정말 이러다가는 둘 다 꼼짝없이 죽을 것만 같았다.

앞을 둘러보자 30m 앞에 7층짜리 건물이 있었다. ‘그래, 저기가 좋겠다.’ 나는 그 건물로 죽을힘을 다해 뛰어갔다. 건물 1층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다. 7층은 결혼식장이었다. 나는 로비에 있는 긴 소파에 아내를 반듯이



놓혀 놓았다. 아내의 신음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나도 온몸이 땀으로 함뻍 젖어 있었는데, 등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여보, 미안해!”

아내가 나를 올려다보며 간신히 한 마디를 뱉었다. 나는 손등으로 아내의 뺨을 살짝 건드렸다. 웃음을 지어 보이려 했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무뚝뚝한 한 마디가 되고 말았다.

“미안하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옷소매로 얼굴을 한번 훔치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7층이라는 공간은 바깥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나와 아내를 분리시키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성 영화처럼 무심히 지나갔다. 내가 언제 저 속에 있었느냐 싶게,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부터 중립 지대에 들어온 것 같았다. 그래서 어떠한 위협한 일도 이 ‘중립 지대’에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비켜갈 것이라는 느낌마저 들었다. 세상과의 경계에 적막감이 산소처럼 씩뚱거 있었다. 아내의 안타까운 신음소리만 무덤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마음을 어지럽혀 놓았다.

저 멀리서 빨간 빛 덩어리가 치질처럼 일어나더니 점점 커지고 있었다. 빨간색 야수 떼처럼 점점 커지는 것이 도화지 전체를 빨

간색으로 채우고 있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은 모두 빨간색이 되었다. 건물이고, 자동차고, 전봇대건, 사람이건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면서, 동화에 나오는 불가사리처럼 자기 몸을 계속 키워 갔던 것이다. 천지의 물이 남겨 둔 것을 빨간색 화마(火魔)가 싹쓸이하고 있었다.

“땅!”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건물 아래쪽을 내려다보니까, 열은 연기 때문에 검은 그림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드러누워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등을 보이고 서 있었다. 그는 엄청나게 키운 몸집으로 돌진해 오는 빨간색 야수 떼를 마주보고 서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피해! 피하라구! 도망가!”

나는 주먹으로 창문을 쿵쿵 치면서 소리 질렀다. 1000m, 700m, 500m, ... 그의 앞에 선 모든 것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전혀 동요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을 보자 야수의 머리와 등이 분노로 끓고 있었다. 야수의 수많은 붉은색 머리와 광활한 등쪽에는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으로 울부짖는 불꽃들이 혀를 날름거리며 먹잇감을 찾아 아귀다툼을 하였다. 마침내 찾아낸 새로운 먹잇감에 그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100m, 50m, 10m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불꽃들이 경충 뛰더니 우산처럼 먹잇감 위로 떨

어졌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이 등을 휙 돌렸다. 엉겁결에 나와 눈이 마주쳤다.

“아!”

나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는 우리가 흔히 보아 왔던 초상화의 주인공이자, 어젯밤 그 두렵고 거대한 공간에서 마주했던 ‘단군’이었다. 콧수염과 턱수염이 난 얼굴이 용암 빛에 조명을 받은 것처럼 선명히 보였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끝이 났다.

이제야 깨달은 사실이지만, 이 건물도 우리에게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다. 아니, ‘안전’ 하고는 정반대였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나는 독 안에 갇힌 생쥐 꼴이 되어 버린 자신을 발견하고는 속으로 가슴을 쳤다. 용암이 순식간에 3층까지 차올랐다. 나는 옥상으로 향하는 통로로 뛰어갔지만, 통로 입구의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나는 절망감을 느끼면서 로비로 돌아왔다. 아내는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얇은 신음소리를 내고, 창밖에서는 시뻘건 용암이 팔죽처럼 끓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얼굴과 창밖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눈물조차 말랐는지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폴짝 주저앉으면서 바닥에 엎드렸다. 그리고 다음의 말을 애절하게 반복했다. “용서해 주세요! 우

리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바닥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얼른 고개를 들었다. ‘아! 건물이 가라앉고 있어!’ 나는 얼굴이 하얘지면서 현기증이 났다. ‘이제 죽는구나!’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용암이 창문을 때리자 창문이 부서졌다. 정복 군처럼 창턱을 넘어 들어온 용암이 소파와 바닥에 떨어지면서 작은 방울이 내 손등에 튀었다.

“앗 뜨거!”

나는 번쩍 눈을 떴다. 사람들이 눈에 비치자 얼른 몸을 일으키면서 냅다 소리를 질렀다.

“‘영변’은요?”

가족들의 눈길이 일제히 침대에 앉아 있는 나에게로 쏠렸다. 그 상태로 정지 화면처럼 시간이 흘러갔다. 갑자기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 분위기는 기분 나쁘게 무겁기만 했다. 내가 상황을 인지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영변인지 용변인지는 또 뭐야?” 마침내 누나가 말문을 열었다. “어떻게 된 거야? 정신 좀 차려! 무슨 잠꼬대가 그렇게 심하냐?”

“뭐가 뜨겁다는 거지? 처남이 꿈속에서 뭐에 데었나 봐, 허허.”

“백두산이 폭발했다는 둥, 핵무기를 치워야 한다는 둥, 난 재 잠꼬대 소리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 이가 어제 너무 무리해서 몸이 힘든가 봐요. 여보, 이제 그

만 일어나요. 출발해야지.”

“근데, 시아주비 어젯밤에 어디 나갔다 오셨나 봐. 화장실 갔다 오는데 자리에 안 보이시더라고.”

“그러면 찾아봐야지, 이 사람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잠깐 바람 쐬러 나가셨나 보다, 했지. 내가 어디를 아는 데가 있다고 찾아다녀요?”